

지명정보의 특성에 대한 해석

정수남, 김철남

우리는 비물질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정보적특성을 해명하고 지명정보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몇가지 이론적연구를 하였다.

지명에 대하여 사전들에서는 간단히 고장의 이름이라고 했으며 일부 선행연구[1, 2]에서는 자연이 이루어놓은 지형, 지물, 지대에 대한 이름과 나라의 령토를 행정적단위에 기초하여 구획하고 구분한 지역, 지점에 준 이름의 총체라고 하였다.

지명은 지리적대상 즉 지리적위치와 속성을 가진 대상의 이름이다.

최근시기 각이한 규모의 지리정보체계들을 구축하면서 지리적대상들의 이름을 지명과 지물명으로 구분하여 리용하였다. 실례로 지도에 현시된 행정구역이나 산, 강, 벌과 같은 자연지리적대상들은 지명으로, 교량, 건물과 같은 사회경제적대상들은 지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명이나 지물명을 지리적대상의 이름으로서 그것의 한가지 중요한 속성으로 보아왔을뿐 지명을 하나의 독자적인 지리적대상으로 본 견해는 거의나 없었다.

지명이나 지물명(통털어 지명이라고 하겠음)도 역시 지리적공간에서 일정한 요인들의 호상작용과 일정한 법칙에 따라 변화발전하는 지리적대상이라고 볼수 있다. 실례로 평양이나 대동강, 모란봉과 같은 지명들의 발생발전에는 언어적 및 력사적요인들과 함께 지리적요인을 비롯하여 자연과 사회의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였으며 그 변화발전과정 역시 무시할수 없는 법칙성에 따라 진행되었다.

지명의 발생발전과정이 길든짧든, 단순하든복잡하든, 인위적이든자연적이든시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공통적인 구조와 그것을 통하여 지명변화에 영향을 준 속성들이 있다. 이러한 지명과 그 변화발전에 영향을 준 속성자료의 총체를 지명자료라고 한다.

지명자료는 지명과 그것이 표현하는 지리적대상의 시공간자료, 지명과 관련한 유래자료의 결합이다.

$$T=\{t_i|t_i=\{N_i, P_i, A_i\}\}$$

여기서 T 는 지명자료모임, t_i 는 지명대상, N_i, P_i, A_i 는 각각 대상의 지명, 시공간자료, 유래자료이다.

지명자료의 량은 방대하며 지명자료에 대한 각이한 학문별연구도 일정하게 진행되었다.

사회발전은 지명자료에 대한 수요 다시말하여 지명정보수요를 급격히 증대시키고있다.

지명은 자기의 고유한 지리적특성과 사회력사적조건, 문화적풍속 등의 영향속에서 형성되어 일정한 력사적기간에 시공간적으로 변화발전하는 지리적대상이다.

지난 시기 지명자료에 대한 기록은 많은 경우 력사적사료의 형식에 머물러있었으며 지리적인 경우에도 정성적인 서술의 틀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수단들이 널리 도입되고 지리정보체계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 오늘의 현

실은 지명에 대한 정보체계를 과학적으로 구성하여 지명자료를 자료기지화하고 수요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줄것을 요구하고있다.

지명정보는 사회력사발전과 함께 계속 산생될뿐아니라 그 수요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지명정보체계를 과학적으로 구성하자면 역사적으로 축적된 지명자료와 현실에서 끊임없이 산생되는 지명정보들을 수집하고 자료기지화하여 관리하며 수요에 따라 정보이용자들에게 전송할수 있는 합리적인 지명정보흐름을 구성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지명정보의 구조적특성에 맞게 지명정보체계를 설계하는것이다.

지명정보의 구조적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명정보 역시 지리정보로서 지리적대상의 위치와 그와 결합된 속성으로 이루어져있다는것이다. 특히 지명은 《여기가 어디인가?》 혹은 《이곳을 어떻게 부르는가?》 등의 질문에 대답을 주는 명칭정보, 《...은 왜 그렇게 부르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주는 유래정보, 《...은 어디에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공간정보와 함께 《...때에 이곳을 어떻게 불렀는가?》 라든가 《...때에 ...이라는 고장이 어디에 있었는가?》 등 시공간적인 정보도 포함하고있다.

둘째로, 지명정보는 재귀적인 특성을 가지는데 이것은 한 지명정보가 다른 지명정보들을 완전히 포함하거나 일정하게 관계되는 성질이다.

실례로 대동강구역이라는 행정지명은 대동강이라는 자연지명을 포함하고있으며 평안남도라는 행정지명 역시 평양과 안주라는 지명들과 관계되어있다.

셋째로, 지명정보는 시공간적인 계층성을 가진다.

공간적인 계층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한 지명대상과 그에 공간적으로 포함되는 다른 지명들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실례로 사향봉은 구월산의 주봉이며 중구역도 평양시의 1개 구역이고 대동문동, 중성동과 같은 세부지명들을 가진다.

시간적인 계층성이라고 할 때에는 시간적인 변화에 따라 지명대상들사이에 형성되는 부모-자식관계를 말한다.

지명은 크게 지리적대상의 주제에 따라 자연지명과 인문지명으로 구분할수 있다.

자연지명은 인문지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공간정보와 재귀적특성이 단순한 반면에 계층성이 명백치 못한것이 특징이다.

인문지명은 행정지명, 사회경제지명, 력사지명 등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지명은 다른 지명대상들에 비해 시공간적인 변화가 복잡하고 재귀적인 특성도 다양하지만 계층성은 명백하다. 력사지명은 시공간적인 변화에서 사료적인 제한으로 연속성이 부족한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지명정보의 구조적특성에 맞게 지명정보체계를 설계하자면 지명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생활에서 지명을 많이 리용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것이 지명의 편리성, 객관성, 정서성이다.

부르기 쉽고 구별하기 편리하며 해당 지리적대상의 본질적특성이 잘 안겨오는 이름, 해당 민족이나 거주지역주민들의 감정정서를 충분히 반영한 이름들이 오래동안 남아있고 또 후세에 전해지는것이 그러한 리유로 된다.

편리성과 객관성, 정서성이 높은 지명들은 오래동안 그 나라, 그 지방 인민들속에 널리 리용되면서 전해지며 유산으로서의 가치도 높아지는것이다.

이러한 지명의 특성들은 언어정보적구성요소들과 지리정보적구성요소들의 결합에 의하여 다양해지며 더욱 풍부해진다. 특히 지리정보적구성요소들은 지명자료의 객관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대상의 위치에 대한 정보, 대상의 형태에 대한 정보, 그밖에도 대상의 각이한 자연지리적조건들에 대한 지리적정보들이 지명구성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명정보의 고유한 특성들을 반영하여 지명정보체계를 구성하자면 지명정보구획을 대상지향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맺는 말

지명정보에 대한 이해에서 기본은 명칭을 가진 지리적대상이라는것이고 매 대상은 공간정보 즉 지리적위치와 형태를 가지며 유래와 형성기간, 파괴사멸기간을 가진다는것이다.

지명정보는 이밖에도 구조상 재귀적인 특성, 시공간적인 계층성 등의 성질들을 가지는데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보구획들을 설계하여야 지명정보체계가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참고 문헌

- [1] 강영호; 지리정보체계,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32~87, 주체99(2010).
- [2] 서학순; 조선행정지명변천사, 사회과학원출판사, 23~77, 주체102(2013).

주체105(2016)년 11월 5일 원고접수

Explanation of Characteristics of Toponymic Information

Jong Su Nam, Kim Chol Nam

We found reflexive characteristics on structure and temporal-spatial hierarchical characteristics of the toponymic information that were very important to design a toponymic information system reasonably.

Key words: toponym, information, spatial-temporal information